

축구

4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통합 중계권 사업자’ 선정 유찰 내년 1월 13일까지 재입찰 접수

축구국가대표팀 및 K리그 통합 중계권 사업자 선정이 유찰됐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통합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을 (6일) 마감한 결과, 중계권 추진 방향에 부합되는 참여사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찰은 연간 250억 원, 2020년부터 최소 4년 간 국가대표팀 경기와 K리그 전 경기(울스타전 제외)에 대한 방송권(TV·뉴미디어) 및 제3자에 재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로 진행됐다. 협회와 연맹은 내년 1월 13일 오후 3시를 접수 마감일로 재입찰에 나선다.

최소 보장금액은 동일하나 변화는 있다. 1차 입찰에서 제한한 여러 사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한다. 유찰 충격도 크지 않다. 협회 이정섭 홍보마케팅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이미 관심을 표명했다. 재입찰은 더욱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협회 중계권 수입은 120억 원(지상파·뉴미디어), K리그는 60억 원이다. 그러나 축구계는 축구 가치 상승과 환경 변화를 주목한다. 2018리시어월드컵 이후 A매치가 흥행을 이어가고 K리그 열기도 뜨겁다. 뉴미디어의 영향력도 커져 지상파에 얽매일 이유도 사라졌다. 더욱이 중국 슈퍼리그는 연간 2600억 원(5년), 일본 J리그는 2017년 연간 2200억 원(10년) 계약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계권 입찰은 콘텐츠 유통과 소비방식 등 축구 산업의 판을 바꾸기 위한 도전이다. 재입찰 실패 대비책도 이미 준비됐다”고 밝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오늘 부산서 ‘E-1 챔피언십’ 개막 | 남·녀 축구대표팀 출사표

벤투 “대회 3연패”…벨 “전승 우승”

또 한번의 정상 도전 벤투 감독
“선수변동 많지만 팀 스타일 유지”

14년 만에 우승 꿈꾸는 벨 감독
“자신감만 있으면 못 할 일은 없다”

태국전사·남자들이 동아시아 축구 최강을 향한 험한 여정에 나선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과 콜린 벨 감독(잉글랜드)의 여자대표팀은 10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동반 우승에 도전한다.

남자대표팀의 목표는 2015·2017년에 이은 대회 3연패, 통산 5번째 우승이다. 벤투호는 홍콩(11일)~중국(15일)~일본(18일·이상 오후 7시30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과 차례로 맞서 또 한번의 정상 정복에 도전한다.

흥미로운 대목은 홍콩을 제외한 모든 출전국들이 풀 전력인 아니라는 점이다. E-1 챔피언십이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벤투 감독은 K리그와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 멤버들을 호출했다.

그런데 중국도 최정예가 아닌 2진을 내세웠고, 일본 역시 절반 가까운 인원을 22세 이하(U-22) 대표팀에서 차출했다. 결국 플랜B와 세대교체를 염두에 둔 선택이다. 협회 김판곤 국가대표전략강화위원장(부회장)은 “2022카타르월드컵까지 긴 호흡으로 선수 풀(Pool)을 최대한 넓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축구가 동아시아 정상 남녀 동반등극이라는 목표를 향해 닦을 올렸다. 남자축구를 이끄는 파울루 벤투 감독(왼쪽)과 여자축구를 지휘하는 콜린 벨 감독이 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EAFF E-1 챔피언십 공식 기자회견에서 출사표를 밝히고 있다.

부산 | 뉴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다. 타이틀 방어다. 특히 ‘개최국은 우승하지 못 한다’는 이상한 대회 징크스가 있어 시선이 모아진다. 실제로 역대 7차례 대회에서 개최국 우승은 한 번도 없었다. 한국 역시

호스트 자격의 2005년(4위)과 2013년(3위) 당시 우승에 실패했다.

벤투 감독은 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개막 기자회견에서 “상대를 존중하되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겠다. 선수 구성

일자	대진(구분)	장소
10일 오후 4시15분	한국-중국(여자)	부산구덕
11일 오후 7시30분	한국-홍콩(남자)	부산아시아드
15일 오후 4시15분	한국-대만(여자)	부산아시아드
15일 오후 7시30분	한국-중국(남자)	부산아시아드
17일 오후 7시30분	한국-일본(여자)	부산구덕
18일 오후 7시30분	한국-일본(남자)	부산아시아드

이 바뀌었지만 팀 스타일을 유지해야 한다”며 “훈련이 짧았고, 합류시기도 제각각이었다. 홍콩과의 1차전을 통해 조직력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여자축구는 2005년 첫 대회 이후 14년 만에 우승을 꿈꾼다. 10월 여자대표팀의 첫 번째 외국인 사령탑으로 뽑힌 벨 감독은 내년 2월 제주도에서 열릴 2020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을 위한 전력 점검과 조직력 다지기에 초점을 뒀다.

중국(10일·구덕운동장)~대만(15일·이상 오후 4시15분·아시아드주경기장)~일본(17일·오후 7시30분·구덕운동장)을 상대할 여자대표팀은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다. 1·2차전은 나흘 간격이지만 2·3차전은 휴식일이 하루 밖에 없다. 회복과 다음 경기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목표는 3전 전승 우승이다. 항상 성공하고 이긴다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모든 선수들의 열정이 넘치고 태도가 좋다.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능력은 충분하다. 자신감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한순간 방심이 강등으로…제주·경남이 남긴 교훈

2017·2018년 준우승했던 돌풍의 팀
안일한 시즌 준비로 호된 대가 치러

준우승의 추억은 오간데 없다. 강등이라는 상처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치열했던 승강 플레이오프를 끝으로 2020년 K리그 지형도가 모두 완성됐다. 큰 변화가 일었다. 올해 K리그2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광주FC와 K리그1 최하위로 처진 제주 유나이티드가 일찌감치 자리를 맞바꾼 가운데 부산 아이파크가 8일 종료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경남FC를 누르고 5년 만의 승격 기쁨을 맛봤다.

내년 시즌을 K리그2에서 맞이하게 된 경남과 제주는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떠올릴 만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승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K리그

2에서 정상을 밟고 이듬해 K리그1으로 올라선 경남은 2018년 예기치 않은 돌풍을 일으켰다. 다른 기업구단들보다 몸집은 작았지만, 이와 못지않은 경쟁력을 뽐내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제주 역시 2년 전 기억이 또렷하다.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승수(19승)를 챙기면서 준우승을 기록했다.

경남과 제주 모두 개막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승후보로 분류된 구단들이 아니었던

테라 축구계는 이를 신선한 바람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옮겨올수록 모두 희미한 추억이 돼버리고 말았다.

경남과 제주의 추락은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남긴다. 한때 정상을 넘본 구단이라 해도 안일하게 시즌을 준비하는 순간, 강등이라는 절벽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있다. 또 구단의 내부 결속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체 조직력이 일순간 흐트러지게 된다는 충고도 내포돼 있다. 경남과 제주가 떠나면서 남긴 메시지를 가버이 넘길 수 없는 이유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롤러그릴푸드 타코스틱은?

- 한국에 없는 마지막 남은 패스트푸드 빅 아이템
- 세계적 최신트렌드 에스닉푸드 메뉴 공급
- ※ 에스닉푸드: 베트남, 태국, 멕시코를 아직 우리에게 생소국가의 음식
- 소형 냉동제품으로 다양한메뉴 효율적관리
- 유행을 타지않는 가장 핫한 아이템

타코스틱 판매 매장

- 푸드코트 ●학교, 회사 및 공장 등 매점
- 맥주, 커피 전문점●백화점 및 마트의 델리매장
- 고속도로 휴게소 ●각종 음식점내 셀프코너
- 놀이동산 및 스키장매장 ●푸드트럭



미국에서 1년에 10억개 이상 팔리고,
한국에는 아직 없는,
패스트푸드 빅 아이템 롤러그릴푸드
타코스틱으로 한국판매 개시
소자본으로 대박수익을 창출 할
총판및 대리점주를 모집니다



- 총판및 대리점 지원사항
- 본사의 영업력으로 개설회기에 지역내 10여개 점수를
- 설치하여 초기운영지원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 취급점 모집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성상을
- 이루도록 마케팅지원에 최선을 다할것니다

※ 대리점개설시 소자본투자(1,400만원)로 10여개매장 운영효과

- 1)소형매장 사업의 장점
 - 소형스택의 다양한 많은 메뉴의 준비 가능
 - 냉동 보관으로 재고 관리 및 유통기한 관리 용이
 - 롤러그릴로 손쉬운 조리 가능하며 많은 인원이
 - 소요되지 않으며 숙련된 조리사가 필요치 않음
- 2)다양한 메뉴 구성
 - 단일구성 : 소형 가판대
 - 혼합구성 : 대형 가판대 토네이도 브리토,
 - 음료 및 음료 메뉴 구성



■대리점문의/제품문의

02)3431-9945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2 신천빌딩 3F

www.tacostic.com